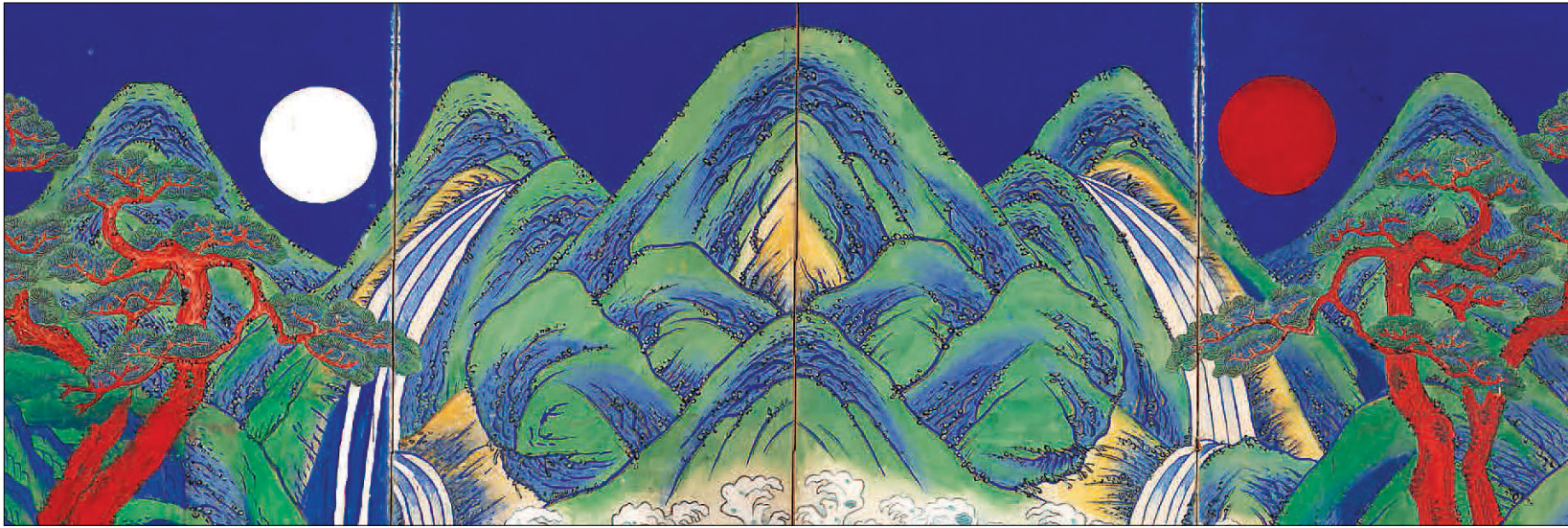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4~5/2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리지않네 | 여백 | 법정 최인호 | 6 |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 사유수 | 수신오도 |
| 2 |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 (주)조계출판사 | 무비스님 | 7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 효림 | 우룡문선림권현 |
| 3 |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 문예출판사 | 타계타사/행영 | 8 | 꿈을깨면 내가부처 | 정도 | 서암스님 |
| 4 | 불교기독교를논하다 | 모과나무 | 이제열 | 9 |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민족사 | 동봉지음 |
| 5 |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 김영사 | 박진여 | 10 |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법스님이 들려주는) | 담엔북스 | 자현 |



일월오봉도. 비단에 채색한 4폭 병풍, 19세기 작품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도판 펼치니 피카소 뺨칠 그림에 눈이 호강하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민화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특히 우리 조선 민화는 일본 사상이 야나기 무네오 시(1889~1961)가 극찬한 예술품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민예관을 통해 조선 민화를 수집한 야나기는 일찌감치 예언했다. 민화의 가치가 높고 평가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제 60여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소리소문없이 부는 민화 열풍과 함께 국내 민화 연구자들의 학회결과 예술 혼으로 870여점의 국내외 전통 민화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집대성 했다. 민화 전문가인 경주대 정병모 교수가 총괄 기획한 이 도록은 '260*380mm' 특별 판형으로 400쪽에 걸쳐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산수화와 문인화를, 제2권은 화조화를, 제3권은 책거리와 문자도를 중심으로 편집했다. 방대한 프로젝트에 걸맞게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윤범모 가천대 교수, 윤영수 가회문화박물관장,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외국 피에르 캄프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백금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박물관 명예큐레이터, 보송니엔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 등이다. 원고 집필자로는 이성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기시 후미카즈(岸文和) 일본 도시사대학 교수, 김성림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가 참여했고, 도판 해설에는 19인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했다. 연구자 총 30여명은 이 기획을 위해 10년 이상 공을 들였다.



한국의 채색화 전 3권

정병모 기획 | 다할미디어 펴냄 | 각권 20만원

30여명 10년 이상 도판 등 정리

궁중화·민간민화 870여점 집대성

도판중 70프로 첫 공개되는 명품들

제대로 만든 한국 최초의 민화 도록

도판을 찍고 관련 정보를 취재했다. 국내외 경우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30여 개 소장처의 작품을 소개했다. 외국의 경우는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일본민예관,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20여 개 소장처의 작품을 실었다. 기존에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과 처음 발굴된 명품과의 적절한 조화를 꾀했다.

역사드라마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임금의 앉은 용상 뒤에 내걸던 해와 달이 공존한 궁중장식화 '일월오봉도', 용맹을 자랑하는 호랑이 모자의 모습을 담은 호랑이 출산도, 왕족들의 사냥 장면을 담은 호렵도 등 도판을 보고 있노라면 눈이 호사를

누린다. 피카소 그림을 뺨칠 정도의 생동감 넘치는 걸작들이 대거 들어있다. 도판 가운데 약 70% 이상이 처음 공개되는 귀한 작품이라고 한다. 궁중회화와 민화는 한국적 특색이 가장 뚜렷할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행복을 빌어주는 상징의 힘까지 갖춘 복합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이들 채색화의 뛰어난 덕목이다. 궁중장식화는 '화원들이 그린 궁중 장식용의 병풍그림'을 가리키고, 민화는 '서민화자들이 그린 일반 국민 수요의 그림'을 말한다. 이들은 서로 수요가 다르지만, 제재나 화풍에서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민화라는 큰 범주 속에 두 장르를 아우른다. 하지만 궁중회화는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장식적인 채색화이고, 민화는 자유롭고 해학적이며 현대적인 채색화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화단은 사대부들 주도의 수묵화 및 문인화 위주로 편향돼 왔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분야는 채색화다. 이의 부흥을 통해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궁중회화와 민화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의 궁중회화와 민화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에서 관심과 인기가 높아,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 개인소장자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번 도록에서는 새롭게 조사된 해외 소장 작품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뉴야크미술관, LACMA,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PEM, 브루클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일본의 일본민예관 등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화 걸작들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화도록 출간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 이미 40년 전인 1975년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서 〈李朝の民話〉라는 도록을 펴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서 간행된 민화도록들은 어렵게도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의 채색화〉는 지금까지 나온 민화뿐만 아니라 미술 도록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을 목표로 제작했다. 이 도록은 앞으로 영문판, 일본판, 독일어판 등으로 제작하여 우리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도록 출간 과정서 클라우드 펀드라는 출판계에서 유례가 없는 투자 개념을 도입했다. 이 기획을 신신치 여긴 500여 민화작가들이 사전예약을 해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 줬다"며 "주부들을 비롯한 아마추어들도 시작된 민화의 붐은 이제 한국미술계의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그런 면에서 이 도록은 현대 민화를 더욱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모디콘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소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총괄 기획자 정병모 교수는?

전 세계의 민화를 찾아 20여 년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물론 해외의 박물관과 개인 컬렉션을 조사했다. 〈반갑다 우리민화전〉 등 다수의 민화전 사회를 기획했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대학과 박물관서 민화강연을 했다. 한국민화학회도 창립한 민화전문가다. 현재는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민화학회 회장인 한국민화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우명 화가의 반란 민화〉 〈한국의 풍속화〉 등이 있다.

죽음 고통서 벗어나 영원한 삶 살려면?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전에

베를린 리포체와 달고 켄체 리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 민족사 펴냄 | 1만 3800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 사고로, 얼마 전 일어난 네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쓰러진 시신이 되어 돌아온 가족, 친지의 죽음에 오열하고 괴로워한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다. 고통인 줄 알면 벗어날 길도 열린다.

이 책은 티베트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베를린 리포체가 지은 계승에 달고 켄체 리포체가 주석을 붙였다. 이 책은 죽음의 고통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준다.

“베를린 리포체의 수행으로 빛은 마음보석”이란 부제처럼 문자사리 같은 책으로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생명의 불사약과 같다”고 극찬했다. 세첸 코리아의 용수 스님도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책, 평생 옆에 두고 보는 수행의 안내서로서 보고 또 봐야 할 동반 같은 책”이라고 강력 추천했다.

읽기만 해도 세상을 바로 보는 견해를 갖추고 윤회에서 벗어나고픈 수행 정신이 깃들게 되며, 현교와 밀교의 핵심을 체득한(관세음보살) 수행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정리한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 내 몸·내 마음·내 이름에 집착하며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 이 책에서 베를린 리포체와 달고 켄체 리포체는 이러한 집착의 저변에 깔린 자아가 고통과 윤회의 뿌리임을 알게 해 주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는 길을 일깨워준다.

1장 ‘말법시대의 허물’에 대하여’에서는 행복을 위한 행위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기술했으므로 요즘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말법 시대의 부정적인 것들에 맞닥뜨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아울러 윤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고, 어떻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깨워주고 본격적인 수행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의 2장 ‘대승의 견해·명상·행위’에서는 현교와 밀교의 핵심 내용을 세세하게 밝힌다. 수행의 주춧돌인 올바른 견해, 모든 현상의 공함을 아는 견해를 우리 내면의 경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명상, 모든 상황 상황마다 언제나 견해의 경험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베를린 리포체는 계승으로 표현하고, 달고 켄체 리포체는 자세한 해설을 붙여 붓다 가르침의 핵심인 대승의 세계를 보여주고 윤회의 원인이 모든 망상의 해독제를 보여준다.

이 책에 제시된 견해·명상·행위 세 가지 조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수행의 과실이 무리하게 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2장에서는 자비의 화신인 천체지관 세음보살의 티베트어) 수행이 말법시대의 희망임을 역설한다. 천체지 수행인 ‘옴 마니 반메 후’, 불교의 본질과 관세음보살의 정수를 함축하고 있는 육자진언 염송을 강조한다. 염송하기 쉽고, 즉시 무량한 가피

관세음보살 수행 바탕으로 정리

윤회에 대한 설명 명확히 제시

를 읽는 육자진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는 염송 수행에 대한 이해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 3장 ‘세간의 일을 뒤로하고 떠나기’에서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찾는 방법과 가르침과의 조화에 대해 보여주면서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치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수행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윤회의 고통을 알면 망상에서 깨어나고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다르마를 수행하고픈 마음이 확고해 진다. 수행을 통해 삶과 일상생활,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고 고통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오로지 마음을 세간의 목표에서 멀리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살아 있고 다르마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중략〉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입니다”라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불안한 시대의 희망이 무엇인지 이 책은 분명히 일깨워 준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에서 참신함과 인재 키운다!

파라미타 칼리지 (PARAMITA College) 란?

- ▶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교양 학부 대학입니다.
- ▶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교수가 전담하여 지도합니다.
- ▶ 신입생 기숙형 대학(레지던셜 칼리지)을 운영하여 기숙사 생활에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합니다.

* 파라미타는 불교 용어 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 발음을 음에 따라 옮긴 말입니다.

http://web.dongguk.ac.kr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佛記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자연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고 당 사 (구, 천국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납골당 6천기 봉안도량
(이비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www.cheonguksa.co.kr
(인터넷 천국사효자당)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옥계폭포 입구) 전화 043)742-4414, 010-4115-7960